王龍寺院 三尊佛像의 腹藏典籍에 관한 研究*

A Study on the Buddhist Book of Triad Buddhist Statue in Wangryongsawon

송 일 기(II-Gie Song)**

목 차

1. 緒 言	3.3 納入類
2. 王龍寺院의 三尊佛像 및 腹藏遺物	4. 重要 腹藏典籍의 檢討
2.1 王龍寺院의 三尊佛像	4.1 元刊本 圖解金剛經
2.2 腹藏遺物의 收拾現況	4.2 高麗本 妙法蓮華經 三昧懺法
3. 三尊佛像의 腹藏遺物	4.3 高麗本 佛說長壽滅罪護諸童子陀羅尼經
3.1 典籍類	5. 結 言
3.2 文件類	

초 록

이 글은 경주 왕룡사원의 삼존불상에서 수습된 복장유물의 전체적인 현황을 조사하고 평가한 것이다. 특히 복장유물의 조사과정에서 전적류에 대한 가치를 집중적으로 고찰하였다. 그 결과 불복에서 발견된 《도해금강경》, 《묘법연화경삼매참법》, 《장수경》, 《선종영가집》 등은 국가문화재 보물급에 해당되는 중요한 판본으로 평가하였다.

ABSTRACT

This article investigates and evaluates the relics settled from the center of the chest of triad Buddhist statue which is located in the temple of Wangryong in KyungJu as a whole. Especially, it focuses on the evaluation of the value of classical book in the course of research. As a result, it is revealed that classical books, such as *Dohaekumgangkyung*, *Myobubyeonhwakyungsammaechambub*, *Jangsukyung*, *Seonjongyounggajib* are as important printing much as to be national treasure.

키워드: 왕룡사원, 도해금강경, 장수경, 법화삼매, 삼매참법, 묘법연화경, 선종영가집
Wangryongsawon, Dohaekumgangkyung, Myobubyeonhwakyungsammaechambub,
Jangsukyung, Seonjongyounggajib, sammaechambub, Myobubyeonhwakyung

* 이 논문은 2008년도 중앙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한 것임.

** 중앙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igsong@cau.ac.kr)

논문접수일자: 2008년 5월 17일 최초심사일자: 2008년 5월 18일 게재확정일자: 2008년 6월 10일

1. 緒 言

불상의 복장유물은 오랜 시간 동안 불복에 봉안되었다가 특정한 계기로 발굴 수습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복장유물은 마치 타임캡슐과 같은 느낌을 주곤 하여 유물을 대할 때마다 새삼 경이로울 따름이다. 근래에 이러한 복장유물이 여러 사찰에서 간헐적으로 수습되고 있는데, 필자는 그에 대한 조사와 가치를 평가할 기회가 주어져 이에 관심을 기우리고 있다.

그런데 복장유물은 그것을 담고 있던 불상과는 긴밀한 관련성을 갖고 있어, 해당 불상을 조성하게 된 배경이나 의도, 조성 시기나 지역, 복장의 의미를 밝히는데 있어 상호간에 소통이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복장유물의 연구는 이러한 입체적 연구가 필수적으로 요망되나, 현실은 연구자의 전공 영역에 따라 제한적인 부분만을 대상으로 연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일례로 지난 2006년 10월에 경주의 왕룡사원에 봉안되어 있는 삼존불상에서 다수의 복장유물이 발굴되는 과정에서도 볼 수 있다. 이 삼존불상에서는 《圖解本金剛經》을 비롯하여 8종의 불교전적과 인본다라니, 그리고 조성기와 봉납품 등이 수습되었다. 이때 불상에서 발견된 조성기에 의해서 삼존불의 제작시기가 다른 것으로 보아 동시에 동일 장소에서 조성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 중 아미타불은 석가불과 약사불 보다 앞서 조선 성종연간에 조성되어 우연한 인연으로 왕룡사원에 이들이 함께 봉안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삼존불은 조성 이후로 숙종연간 중수되었던 사실도 밝혀졌으며, 이때 약간의 복장품이 추가 납입되었던 사실도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사찰측에서 불상의 양식적 특징과 복장유물의 수습과정을 한국미술사연구소에 의뢰하여 밝혀졌다.¹⁾ 그러나 보고서에는 주로 불상의 조성과 양식 연구에 중점을 두고 있어 불경 등 중요한 복장유물은 크게 부각되지 못한 측면이 없지 않다. 따라서 필자는 본인의 관심 대상인 복장유물 가운데 필사 또는 간인(刊印)된 지류문화재를 중심으로 그것이 지니는 의미나 가치를 살펴보고자 한다.

2. 王龍寺院의 三尊佛像 및 腹藏遺物

2.1 王龍寺院의 三尊佛像

경주 형산의 왕룡사원 대웅전에는 3구의 불상이 법당의 중앙에 봉안되어 있다. 그러나 이곳에 봉안되어 있는 불상 3구는 동일한 시대에 조성된 동일한 불상이 아니다. 복장에서 발견된 조성기에 의하면, 중앙에 안치되어 있는 석가불과 그 우편의 약사불은 1579(萬曆 7)년에 조성되었으나, 좌편에 배치된 아미타불은 1474(成化 10)년에 완성되었던 것으로 밝히고 있다.

먼저 1474년에 완성된 아미타불좌상은 1466년에 팔공산 미륵사(彌勒寺)에서 목재로 제작되어 1469년에 인근의 환성사(還城寺)로 이운되었다가 지난 1920년대에 왕룡사원의 중건주

1) 문명대, 2007. 『왕룡사원의 조선전반기 불상조각』, 서울: 한국미술사연구소.

였던 성전(聖典) 스님이 포항 포교당에서 인수하여 이곳으로 다시 옮겨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목조아미타불좌상의 특징을 살펴보면, 얼굴은 가름한 계란형으로 백호가 크며, 코는 가름하면서 단아하며, 입은 작고 높은 가늘고 온화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머리 부분의 육계는 뽕족하고 긴 편으로 중앙의 계주와 함께 후에 보수되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하체의 무릎이 큼직하며 좌세는 안락좌의 모습으로 결가부좌하고 있다. 수인은 하품중생인으로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어, 전체적인 특징은 1458년에 조성된 흑석사 아미타불상과 흡사하여 고려후기의 양식을 계승한 조선전기의 불상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리고 1579(萬曆 7)년에 조성된 삼존불 중에 현재는 석가불좌상과 약사불좌상만 왕룡사원에 전하고 있다. 석가불과 약사불은 모두 소조로 제작되었다는 점이 아미타불상과 다르다. 이 불상에서는 조성기와 중수기가 함께 수습되어 조성 및 중수시기를 분명히 알 수 있다. 약사불에서 발견된 조성기와 석가불의 중수기를 통해서 임난 직전인 1579년에 조성되었으며, 이후 1716(康熙 55)년에 중수되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이러한 사실로 보아 현재 임진 병난의 피해로 16세기 후반의 불상이 매우 희소한 실정인데, 이 소조불상 2구는 바로 임난 직전에 조성된 불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2 腹藏遺物의 收拾現況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현재 왕룡사원의 대웅전에는 조성시기가 다른 삼존불상이 봉안되어 있다. 지난 2006년 10월에 이곳에 안치되

어 있는 삼존불상 중 약사불의 개금과정에서 일부의 복장물이 확인되자, 석가불과 아미타불의 복장물도 함께 수습하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복장물의 수습과정에는 한국미술사연구소에서 참여하여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는 보고서 형식으로 출판되어 있다. 그러나 이 보고서는 제목에서도 보이는 바와 같이 주로 불상의 연구에 초점이 맞추어 있어 정작 가장 중요한 불경류 등 복장유물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언급되어 있지 않다. 이 삼존불상에서 수습된 복장유물의 세부 목록은 불상의 조성시대 순차로 정리하여 〈附錄〉으로 첨부하였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경주 왕룡사원의 삼존불상 중 아미타불상은 1474년에, 그리고 석가불상과 약사불상은 1579년에 조성되었으며, 이후 1716년에 중수되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 삼존불상에서는 지금까지 전혀 소개되지 않은 새로운 불교전적을 비롯하여 조성기와 달라니, 그리고 후령통 등 상당수의 복장유물이 수습되었다. 따라서 다음 장에서 복장유물의 특성에 따라 이를 전적류, 문건류, 납입류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3. 三尊佛像의 腹藏遺物

3.1 典籍類

목조아미타불좌상을 비롯하여 석가불과 약사불 등 삼존불상에서는 중국의 원나라 때 간행된 불경 등 대단히 중요한 불교전적 16점이 수습되었다. 이처럼 삼존불상에서 수습된 불교전적의 세부 사항은 〈표 1〉과 같다.

〈표 1〉 典籍類의 收拾現況

書 名	卷冊數	刊寫地	年 代	特 徵	備 考
金剛般若波羅密經	1첩	중국(元)	至元4(1338)	變相・插畫	元本
金剛般若波羅密經	1첩		조선전기	白紙墨書寫經	筆寫本
金剛般若經疏論纂要助顯錄	1첩		고려후기	大字細註本	元本覆刻
佛說長壽滅罪護諸童子陀羅尼經	1첩		戊午[1378]		보물701호와 동일본
妙法蓮華經, 卷4-7	4권 1책	石頭寺	嘉靖22(1543)	花岩寺板覆刻	
妙法蓮華經, 卷1-6	6권 6책			乙亥字本覆刻	표지없음
妙法蓮華經三昧懺法	3권 3첩	月山社	泰定3(1326)		보물959, 1162, 1519호와 동일본
禪宗永嘉集, 卷上	1권 2책	刊經都監	天順8(1464)年	刊經都監國譯本	보물774, 1163호와 동일본
	16점				

〈표 1〉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복장에서 수습된 불교전적은 모두 16점으로 조사되었다. 이 중 금강경은 2점으로 원나라에서 간행된 목판본과 필사본 각 1첩이 보이고 있는데, 목판본은 1338년에 원나라에서 판각 간행된 판본으로 그 후 우리나라에서 간행된 판본과 비교하여 주목된다. 당나라 종밀이 찬요한 《금강반야경소론찬요》에 혜정(慧定)선사가 조현(助顯)한 《금강반야경소론찬요조현록(金剛般若經疏論纂要助顯錄)》 일부가 수습되었다.²⁾ 아울러 고려 1378년에 판각된 《불설장수멸죄호제동자다라니경(佛說長壽滅罪護諸童子陀羅尼經)》이 발견되었는데, 현재 보물로 지정되어 있는 판본과 동일하다.

그리고 천태종의 전교승(傳敎僧) 산공(山亘)이 법화삼매의 수행을 위해 예불(禮佛)하고 송

경(誦經) 참회하는 행법(行法)을 법화경(法華經)에 근거하여 상중하(上中下)의 3권으로 편찬한 《묘법연화경삼매참법(妙法蓮華經三昧懺法)》 3첩이 일시에 모두 발견되어 그동안 미궁으로 남아 있던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 외에도 조선 세조 1464년에 간경도감에서 국역 간행된 《선종영가집(禪宗永嘉集)》 상권 1책이 수습되었다.³⁾

3.2 文件類

복장유물 가운데 문건류는 전적류 외에 낱장으로 된 조성기와 다라니가 이에 해당된다. 조성기는 불상의 조성 및 중수시기를 밝히는 결정적 자료로서 복장유물에서 가장 사료적 가치

2) 이 책과 동일한 판본이 국내에는 3점이 현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중 동국대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판본은 보물 제720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그 외에 청주대박물관과 원광대도서관에 각각 소장되어 있다. 최근 이 책의 역주본이 박문열에 의해 역주 간행되어 참고가 된다(朴文烈 譯註, 2008. 『譯註金剛般若經疏論纂要助顯錄』, 淸州: 淸州大學校 博物館).

3) 이 책과 동일한 판본이 두 곳에 수장되어 있다. 현재 동국대본은 상하 2책의 완질본이 보물 제774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또한 김민영본은 권하의 1책으로 보물 제1163호로 지정되어 있다.

가 높은 자료이다. 다라니는 복장에 납입된 여러 성물(聖物)을 보호하기 위한 충전용으로 주로 사용되었다. 왕룡사원의 삼존불에서도 조성기와 다라니가 수습되었는데, 세부적 내용은 <표 2>와 같다.

<표 2>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불상의 조성 및 중수시기를 밝힐 수 있는 문건 6점이 수습되었으며, 형식이 다른 4종의 다라니가 발견되었다. 이 중 불상 조성기는 아미타불조성기, 석가불과 약사불조성기 등 모두 3점이며, 중수기는 아미타불과 석가불중수기 등 2점이 수습되어 불상의 조성과 중수에 관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되었다.

3.3 納入類

납입류는 복장유물 중 전적류 및 문건류를 제외한 것으로 사리를 비롯하여 오종의 실과 곡물 등이 포함되어 있다. 조선시대 봉입된 유물은 임란이후에는 대체로 조상경의 복장의식에 근거하여 납입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왕룡사원의 삼존불상에서 수습된 봉납품은 <표 3>과 같다.

<표 2> 文件類의 收拾現況

문건명	수 량	작성자	작성연대	특 징
釋迦佛造成記	1장	미 상	萬曆7(1579)年	紫麻布墨書
釋迦佛重修記	1장	玄淨	康熙55(1716)	白紙墨書
阿彌陀佛造成記	1장	信連	成化3(1467)年	白絹墨書
阿彌陀佛重修記	1장	玄淨	康熙55(1716)年	白紙墨書
藥師佛造成記	1장	弘忍	萬曆7(1579)年	白紙朱書
種頭牌	1장	미 상	康熙55(1716)	白紙朱書
符籙陀羅尼	1장	미 상	조선전기	白紙朱印
梵字陀羅尼	다수	미 상	조선전기	白紙朱印
梵字陀羅尼	다수	미 상	조선전기	白紙朱印
梵字陀羅尼	다수	미 상	조선전기	白紙墨印

<표 3> 納入類의 收拾現況

명 칭	수 량	불 상	제작연대	재 질
喉鈴筒(附屬品 포함)	1식 2점	석가불 약사불	[康熙55(1716)]	금속(銅)
木舍利壺 및 舍利 (사리4과 및 직물 3점 포함)	1식 2점	아미타불	成化3(1467)年 康熙55(1716)	나무/광물
五色絲	1식 5점	아미타불	[康熙55(1716)]	섬유(마)
五香五若	1식 1점	아미타불	[康熙55(1716)]	종 이
五輪種子	1식 5점	약사불	[康熙55(1716)]	종 이
刺繡 裝飾	1점	약사불	[康熙55(1716)]	섬유(실)

왕릉사원의 삼존불에서 수습된 봉납품은 대체로 1716년 중수시에 시납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1467년 조성된 아미타불에서 수습된 사리는 목제 사리호에 4과가 들어 있는데, 사리를 담은 목사리호는 원형의 분합으로 전체 금물로 칠해져 있는 상태이며, 이를 파랑, 빨강, 녹색의 직물 세 겹으로 포장되어 있는 상태로 수습되었다. 후령통은 석가불과 약사불에서 발견되었는데, 재질은 청동으로 통속에는 오방을 상징하는 원형, 반월형, 삼각형, 사각형, 별형 등의 금속편과 향나무 조각이 들어 있는 상태이다.

그리고 약사불에서는 곡물을 직물에 담고 다시 한지로 쌓아서 오색 실로 묶은 동서남북과 중앙을 상징하는 오륜종자가 수습되었다. 또한 용도를 알 수 없는 말굽형의 자수 장식 1점이 발견되었다.

4. 重要 腹藏典籍의 檢討

4.1 元刊本 圖解金剛經

4.1.1 金剛經의 概要

대승불전의 하나인 금강경은 인도에서 원시불전이 결집된 이후로, 대략 2세기 이전에 결집되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당시에 인도에서는 불탑숭배(佛塔崇拜)가 활발했던 시기로 주로 경제적으로 부유한 계층에서 탑묘(塔廟)의 석주(石柱)나 입석(笠石)을 시주하는 풍조가 지배적이었으나, 빈곤한 계층은 이처럼 고가의 재물을 시주할 수 없는 실정이었다. 그리하여 이 무렵 반야운동이 점차 확산되면서 지혜의 사상을 결집한 반야부의 대반야경에서

독립된 경전으로 금강경이 성립되는 계기가 되었다. 당시 불자 사이에는 이 경전을 매일 수지독송(受持讀誦)하게 되면, 누구나 동일한 공덕을 누릴 수 있다는 믿음이 충만해 있었다. 금강경이 성립된 이후로는 오히려 부유층에서도 이 경전을 항상 수지하여 독송하고자 하는 수행의식이 강조되어, 중국에 전래되어 한역(漢譯)된 이후 동아시아 전역으로 널리 유포되었다.

이처럼 인도에서 성립된 금강경은 그 후 구법스님에 의해 중국에 전래된 이후, 402년에 구마라집(Kumarajiva 鳩摩羅什)으로부터 한역이 시작되어 703년에 의정(義淨)의 역출(譯出)에 이르기까지 300년 사이에 이른바 아래와 같은 6종의 한역본이 완성되었다.

- ① 鳩摩羅什(姚秦) 譯, 金剛般若波羅蜜經 一卷(AD 402~412年間 譯經)
- ② 菩提流支(魏) 譯, 金剛般若波羅蜜經 一卷(AD 509년 譯經)
- ③ 眞諦(陳) 譯, 金剛般若波羅蜜經 一卷(AD 562년 譯經)
- ④ 達摩笈多(隋) 譯, 金剛能斷般若波羅蜜經 一卷(AD 605~616년간 譯經)
- ⑤ 玄奘(唐) 譯, 能斷金剛般若波羅蜜多經 一卷(AD 648년 譯經)
- ⑥ 義淨(唐) 譯, 佛說能斷金剛般若波羅蜜 一卷(AD 703년 譯經)

이러한 6역본 중에 현재까지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유통되고 있는 역본은 구마라집에 의해 처음으로 번역된 금강경이다. 그는 후진 홍시(弘始) 3(401)년에 중국의 장안에 당도하여 국사로 책봉된 이듬해부터 불경의 번역에 착수하여 좌선삼미경(坐禪三昧經), 아미타경(阿彌

陀經) 등을 역출하고, 이어서 대품반야경(大品般若經, 403년), 대지도론(大智度論, 405년), 법화경(法華經, 406년), 유마경(維摩經), 범망경(梵網經, 407년), 소품반야경(小品般若經, 408년) 등 모두 35부 397권을 한역하였다. 그런데 구마라집의 금강경 역경시기에 대해서 이설이 없지 않으나, 대략 홍시 4(402)년부터 14(412)년 사이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처럼 금강경의 역본으로는 현재까지 6종의 역본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고려대장경에는 달마급다(達摩笈多)의 역본이 입장(入藏)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 우리나라에서는 그다지 유행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구마라집이 번역한 금강경은 이미 남조의 양(梁)나라(502~557)에서 널리 유통되어 강경법회(講經法會)가 수차 개최되었던 사례를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영향을 받은 양 무제의 아들인 소명태자는 금강경을 32분(分)으로 분장하여 그 대의를 이해하는 높은 수준에 이르고 있었다. 그리고 ‘영험공덕기(靈驗功德記)’를 통해서 중국의 양나라로부터 수·당대에 이르는 영험공덕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당시의 사정으로 보아 금강경은 대략 6세기를 전후한 시점부터 공덕을 목적으로 남조의 황실(皇室)을 중심으로 사찰(寺刹)에 널리 유통되어 수지독송(受持讀誦)되었던 사실을 알 수 있다. 한편 당시 백제는 남조의 양(梁)나라와 밀접한 교류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까닭에, 우리나라

에는 한역금강경(漢譯金剛經)이 일찍이 백제 시대에 전래 유통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한역금강경이 우리나라에는 백제 시대에 이미 전래 유통되었는데, 지난 1965년에 익산 왕궁5층석탑의 사리장치에서 《金紙金剛經》이 발견되어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킨 바가 있었다.⁴⁾ 우리나라 고려시대에 고려대장경에 수록된 것을 제외하고 간행된 판본류를 살펴보면, 고려 초기 간본으로 임피현령(臨陂縣令)인 최적량(崔積良)의 발원으로 1042(重熙11)년에 간행한 소형본의 권말 일부 잔편(殘片)이 남아 있다.⁵⁾ 그리고 지난 2004년에 광주광역시 소재의 자운사 아미타불좌상에서 《註解本金剛經》이 수습되었는데, 이 책은 청주목의 관원인 갈남성(葛南成)이 1215(고종2)년에 송광사 제2세 국사인 진각(眞覺)국사가 소지하고 있었던 경전을 얻어다가 판각한 것으로 밝혀져 있다.⁶⁾

한편 사찰본(寺刹本)으로는 1214년에 군생사(群生寺)에서 판각한 목판, 1237년의 대자본(大字本)과 1245년에 판각된 경판이 현재 해인사 판전에 보존되어 있다. 1228년에 간행된 소자본과 1311년에 판각되어 1339년 다라니와 합철된 판본이 봉림사(鳳林寺) 아미타불좌상의 불복(佛腹)에서 발견되어 현재는 화성 용주사에 소장되어 있다. 이외에도 1326(泰定3)에 대규모로 금강경 1만권을 인성한 사례가 보이고 있다.⁷⁾

4) 宋日基, 2004. 益山 王宮塔 出土《百濟金紙角筆金剛寫經》의 研究. 『馬韓·百濟文化』, 16: 147-183.

5) 南權熙, 2002. 『高麗時代 記錄文化 研究』. 청주: 고인쇄박물관, 7-10.

6) 宋日基, 2004. 光州 紫雲寺 木造阿彌陀佛坐像의 腹藏典籍考. 『書誌學報』, 28: 79-114.

7) 이때 간행된 《金剛經》은 1959년 4월에 충청도 청양 장곡사의 금동약불상 불복(佛腹)에서 《華嚴經》과 간경도감본〈法華經諺解〉 등과 함께 수습되어 국립박물관에 소장된 바 있으나, 현재는 이들 복장유물의 행방이 묘연한 실정이다. 다만 李殷昌의 보고에 따르면, 금강경은 앞표지와 권수 일부가 일실되었으나, 장정은 절첩장이며 지질

그밖에 관판본으로는 1357년에 전주 관아에서 판각된 전주본(全州本)과 1363년에 남원에서 판화가 수록된 판본이 삼성출판박물관과 성암고서박물관에 각각 소장되어 있다. 한편 금강경의 내용을 과분(科分)한 판본도 역시 해인사에 소장되어 있으며, 경문에 협주(夾註)가 들어 있는 1305년의 청주 원흥사(元興社) 판본이 근래에 보물로 지정되어 청주고인쇄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그리고 주해본으로 1378년에 간행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판본이 동국대도서관(보물721호)에 소장되어 있으며, 또한 1387년에 개성의 금사사(金沙寺)에서 간행된 판본으로 추정되는 국립박물관 소장의 천로주해본(川老註解本)과 그 이판(異板)이 영남대에 소장되어 있으며, 이밖에 범망경(梵網經)과 합철 간행된 판본도 보이고 있다.

4.1.2 元刊本 圖解金剛經의 特徵

경주 왕릉사원의 석가불의 불복에서는 원나라에서 목판으로 간행된 금강경 1첩이 발견되었다. 그런데 이 금강경은 권수에 변상도가 수록되어 있을 뿐 만 아니라, 본문에도 상하단으로 구분하여 상단에 도해와 주해(註解)를 배치하고 하단에는 경문이 수록되어 있는 매우 독특한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도해본 금강경이다. 앞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이와 유사한 계통의 판본으로 고려 1363년에 남원에서 간행된 관판본이 주목된다.⁸⁾ 이 남원판 또한 본문은 상화하문(上畫下文)의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전본 중 성암본(誠庵本)은 보물로 지정되어 있다. 또한 이 판본을 모본으로 조선시대 사찰에서 번각한 패엽사판과 광흥사판도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이 책의 서지사항은 아래와 같다.

서명	金剛般若波羅密經
저자	釋迦(天竺) 造: 鳩摩羅什(姚秦) 譯.
판종	木板本(中國)
발행	中國(元): [大元國大都 在城蓬萊坊], 至元4(1338)年.
형태	折帖裝, 上段變相下段經文: 1折 28.5 × 11.0cm.
판식	上下單邊, 板高 20.8cm, 無界, 下段1折 7行12字.
표제	金剛般若波羅密經(金泥寫)
간기	至元四(1338)年戊寅五月日
특기	卷首變相: 20.8 × 42.8cm, 본문에 삽화와 주해가 있고 卷末에 神將圖있음. 表紙는 고려사경의 표지와 동일하며, 전체적으로 楷接 수리되어 있음.

은 갱지(更紙)와 같고 뒤표지는 두터운 감지(紺紙)로 되어 있다고 하였다. 권말에 수록되어 있는 발원문을 전재해 놓아 참고가 되는데, 발원문의 내용은 “金剛經者以空爲宗空性無導一切圓應/求長壽者能得長壽故謂之續命經是以伏爲/皇帝萬萬歲/皇后/皇太子齊年享福兼及寡躬延壽保安上昇/公主超生淨刹社稷長興法界生土俱霑妙益/印成一萬卷廣施無窮者/泰定三年二月日誌”와 같다(李殷昌, 1962, 長谷寺의 金銅藥師坐像 腹藏佛經, 『考古美術』, 3(11): 315- 316). 이상의 발원문 내용과 紙質이 원나라에서 사용한 죽지(竹紙)일 가능성이 높아 이 《금강경》은 원나라에서 간행되어 장곡사 불상에 납입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8) 이외에 《圖解金剛經》으로 금나라에서 개판(開板)된 판본이 현재 중국에 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책은 금나라 흥정(興定)5(1221)년에 간행된 사실이 ‘興定五年五月初一日工畢’이란 간행기록에 의해 확인된다(<http://www.wongaksa.or.kr>/참조 소장문화재: 전적). 그리고 이 보다 앞서 간행된 서하본(西夏本) 여러 점이 흑수성에서 발굴된 바 있는데, 권수에 변상이 수록되어 있다.

이상의 서지적 특징을 살펴보면, 최근에 경주 왕룡사원의 석가불에서 수습된 《도해금강경》은 우리나라 고려시대 1363년에 남원에서 개판된 판본과 매우 유사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 현재 이 고려본은 성암고서박물관과 삼성출판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으며, 성암본은 현재 보물 696호로 지정되어 있다. 그러나 성암본과 왕룡사원본을 서로 비교해 보니 완전히 일치되지 않아 단순히 복각본으로 보기는 곤란한 점이 없지 않다. 따라서 먼저 왕룡사원의 복장본 금강경의 구성체제 및 서지적 특징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성암본과의 세부적 검토를 진행하고자 한다.

복장본은 표지가 고려사경의 표지와 동일한 형식으로 제작되어 펼쳐 보지 않은 상태에서는 고려사경으로 오인할 수 있을 듯하다. 표지는 둘레에 굵은 테두리를 금니로 긋고 그 사이에는 보상화문으로 장엄하였으며, 중앙에는 4개의 연화(蓮花)를 금니로 그리고 그 주위는 보상화문으로 장식되어 있다. 연화의 중앙에 제첩 형식에 ‘金剛般若波羅密經’이란 경제(經題)가 금니로 쓰여 있으며, 경제의 상단에는 ‘鶴立巴橫’의 표시가 그려져 있다. 전체적으로 우측 부분에 충식이 나타나 있어 부수한 흔적이 보이고 있으며, 장정의 형태는 병풍처럼 펼쳐서 볼 수 있는 접장본으로 표지의 크기는 28.5 × 11.0cm이다.

권수에는 변상도 1장이 수록되어 있는데, 크기는 20.8 × 42.8cm로 계측된다. 변상도의 형식은 고려사경 변상도와 매우 흡사한 느낌을 주고 있다. 변상도에 이어서 금강경개청(金剛經啓請)과 진언문(眞言文)이 수록되어 있고 그 다음으로 진소(陳昭) 등 12인의 영험사실이 기재되어 있으며, 이어 계송과 발원문이 나타나고 있다.

권두서명은 표제와 동일하게 ‘金剛般若波羅密經’으로 되어 있으며, 서명 다음 행에 구마라집(鳩摩羅什)이란 역자가 표시되어 있다. 본문은 양 무제의 아들 소명태자가 금강경을 32분(分)으로 분장하고 4자씩으로 각 장에 ‘法會因由分第一’과 같이 장제(章題)를 달고 있다. 판면의 구성은 상하단으로 구분하여 상단에는 육조의 구결, 천로의 송, 부대사의 찬과 이에 해당 경문의 내용을 요약하여 묘사한 도상이 배치되어 있으며, 하단에는 경문이 수록되어 있다.

이 책의 판식을 살펴보면, 변란은 상하단변(上下單邊)으로 상하의 크기는 20.8cm이며, 접은 한 면의 크기는 11cm이다. 행격을 보면 접은 1면을 기준으로 7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행은 12자로 배자되어 있다. 장차표시는 접은부분의 중앙에 기재되어 있는데, 대체로 2내지 3절마다 표시되어 있다. 권말에는 반야진언(般若眞言)과 보결진언(補闕眞言)에 이어 호법선신장도(護法善神將圖)가 수록되어 있어 한층이 경의 장엄성(莊嚴性)을 돋보여준다.

그리고 신장도 다음에 왕실의 수명장수를 축원하는 발원문이 수록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上元國大都在城蓬萊坊居住奉

三寶弟子朝列大夫利用監太卿嚴也先不花同室王氏

謹發誠心命工刊造大乘金剛般若波羅密經板一副

印施流通集斯善利奉祝

皇帝聖壽萬歲萬萬歲

太皇太后懿筭無疆

中宮皇后壽等齊年

太子千秋諸王宗室各保安寧文武官僚常居祿位諷誦雨順

國泰民安佛法永傳魔怨消伏兼及已身現增福壽

當證妙果三塗八難咸脫苦輪九有四生齊登覺岸者”

그 다음 행에 “至元四年戊寅五月 日”이란 간기(刊記)가 새겨 있어, 이 책은 1338년 5월에 간행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밖에 고려본에서 보이는 글씨를 쓰거나 그림을 그린 서화원(書畵員) 등 간행에 직접적으로 참여했던 인물들의 이름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그런데 고려본에는 권말에 “지정이십삼년계묘팔월일 남원개판(至正二十三年癸卯八月日南原開板)”이란 간기(刊記)가 새겨 있으며, 다음 행에 서원(書員) 신지(信之), 화원(畵員) 법계(法戒), 각자(刻字) 신명(信明)과 법공(法空), 공덕주(功德主) 조송주(曹松柱), 근선(勤善) 각민(覺敏), 동원(同願) 이중순(李中順)과 정여(定如), 봉상대부지남원사(奉常大夫知南原事) 설사덕(薛師德) 판관겸권농사(判官兼權農使) 김영기(金英起) 등 이 책의 개판과 관련된 인물들이 차례로 기재되어 있다. 그리하여 이 간행기록을 통해, 이 책은 공민왕 12년(1363)에 남원부사 설사덕(薛師德)과 판관 김영기(金英起)의 주관으로 신지(信之)가 글씨를 쓰고 법계(法戒)가 그림을 그려 간행한 불경으로 확인된다.

이러한 사실로 보아 현재 보물로 지정되어 있는 성암본(誠庵本)은 왕릉사원의 석가불에서 발견된 원나라 간본(刊本)과는 직접적인 복각본(覆刻本)으로 볼 수 없을 듯 하며, 단지 이를 저본으로 고려인 서사자와 화원이 새로 쓰고 그려서 판각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비록 왕릉사원본은 원나라에서 간행된 판본이긴 하나, 변상도 및 본문의 글씨와 판화의 새김이 매우 정교하고 인쇄 상태도 선명하며, 또한 표지의 장식이 고려사경과 동일한 형식으로 제작되어 최선본으로 평가해도 손색이 없다.

4.2 高麗本 妙法蓮華經三昧懺法

4.2.1 妙法蓮華經三昧懺法の 概要

삼매참법은 불교에서 법화경 및 관보현보살행법경(觀普賢菩薩行法經)을 근거로 하여 참회하는 종교의식으로 삼칠일 동안을 기한으로 정하여 법화경을 독송하면서 죄업을 참회하고 실상중도(實相中道)의 도리를 관조 수행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처럼 삼매참법은 법화경에 근거하여 죄업을 참회하는 불교 수행법으로 먼저 육시오회(六時五悔)라 하여, 아침·낮·해질녘·초저녁·밤중·새벽의 여섯때를 정하여 참회·권청(勸請)·수희(隨喜)·회향(廻向)·발원(發願) 등 5문(門)의 차례에 따라서 죄를 소멸시켜 가는 수행 방식을 가리킨다.

수행방식은 육시(六時) 중 어느 때든지 먼저 이미 지은 죄를 뉘우치고 장래에 죄를 짓지 않겠다는 참회를 한 뒤 모든 부처님이 영원히 이 세상에 머무르기를 권청하며, 질투하는 생각을 버리고 남의 여러 가지 착한 일을 칭찬하는 수희의 마음을 기른다. 그리고 닦은 모든 선근(善根)을 진리의 체험과 중생의 구제에 돌리는 회향을 한 뒤, 또다시 깨달음을 이루겠다는 소원을 나타내어 앞의 네 가지 행을 인도하는 발원을 하게 된다. 그리고 이 삼매를 이루기 위해서는 몸과 입과 뜻을 잘 단속해야 하는데 이를 신개차(身開遮)·구설묵(口說默)·의지관(意止觀)이라고 한다. 무상행은 법화경의 안락행품(安樂行品)에 의해서 깊고 묘한 선정(禪定)에 들어가 육정근(六情根)을 관하여 실상삼제(實相三諦)의 정공(正空)을 체달하고 삼매를 이루는 과정을 말한다.

우리나라에는 천태종(天台宗)이 유입되기 전인 삼국시대부터 법화삼매를 닦는 고승들이 있었다. 특히 백제의 현광(玄光)은 법화삼매를 증득하고 응주를 중심으로 크게 교화하였으며, 혜현(惠現)도 한마음으로 법화경을 독송하여 이 삼매를 증득하였다고 한다. 신라의 연광(緣光)은 이 삼매를 닦아 화장한 뒤에도 혀가 타지 않는 영험을 보이기도 하였다.

고려시대에는 의천(義天)이 천태종을 세운 뒤에 이 종파를 중심으로 하여 법화삼매를 닦는 것이 크게 유행하였고, 고려 중기에는 요세(了世)가 세운 백련사결사(白蓮社結社)를 중심으로 이 삼매를 닦고 익혔으며, 고려 말에는 개경의 묘련사(妙蓮寺)와 보암사(寶巖社), 연화원(蓮華院), 수원의 만의사(萬義寺) 등지에서 이 삼매를 닦는 결사가 유행하였다고 한다. 이와 같은 법화삼매참법은 우리나라 및 중국의 천태종(天台宗)을 중심으로 하여 널리 행하여졌다.

법화의 참법에는 본래 수나라의 지자대사(智者大師) 지의(智顗)가 엮은 《법화삼매참의(法華三昧懺儀)》 1권(卷)이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법화경(法華經) 보현관경(普賢觀經) 및 다른 여러 대승경(大乘經)을 바탕으로 엮은 것이기 때문에 법화경(法華經)만을 바탕으로 삼고 엮은 이 책과는 그 내용이 전혀 다르다.

이 책은 천태종의 전교승(傳敎僧) 산공(山公)이 법화삼매의 수행을 위해 예불(禮佛)하고 송경(誦經)하고 참회하는 행법(行法)을 법화경(法華經)에 근거하여 상중하(上中下)의 3권으로 성편(成篇)한 것이다. 이 참법의 내용은 법화경의 서품(序品)부터 화성유품(化

城喻品)까지의 7품을 4과(科)로 구분하여 상권으로 하고, 다음의 오백제자수기품(五百弟子受記品)부터 분별공덕품(分別功德品)까지의 10품을 또한 4과(科)로 나누어 중권으로 하고, 그 다음의 수희공덕품(隨喜功德品)부터 보현보살권발품(普賢菩薩勸發品)까지의 11품을 역시 4과(科)로 간추려 하권으로 성편하였다. 이 책은 우리나라에는 상하 2책만이 유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현재 경주 기림사에는 권상 1책이, 그리고 구인사에는 권하 1책이 각각 소장되어 있다.

4.2.2 妙法蓮華經三昧懺法の 特徵

우리나라의 법화참법 의식은 의천(義天)이 송나라에서 천태법화종(天台法華宗)을 전수하여 교종(敎宗)이 시창된 이후 그의 문하승들이 전교한데서 퍼지기 시작하여 여말(麗末)에 이르기까지 성행하였다. 그런데 현재 유일본인 보물로 지정된 판본에는 판각시에 새긴 간기(刊記)가 없어 언제 간행했는지 알 수 없다. 다만 판식(版式)이 본시 권자(卷子) 또는 접장형식이고, 장차(張次)표시에 ‘丈’자의 이체자(異體字)로 보이는 ‘卜’자로 표기하고 있고, 또한 자체(字體)가 고려후기에 유행하였던 송설체(松雪體)이며, 조선 성종3년(1472)에 후인(後印)해 냈음에도 각자(刻字)에 별로 마멸이 나타나 있지 않은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고려말기에 판각한 것으로 추정해 왔다.

그러나 왕룡사원의 삼존불에서 수습된 판본은 상중하 3책이 온전할 뿐만 아니라, 권하 말미에는 간기와 시주질이 수록되어 있어 간행사실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주목된다. 왕룡사원본의 서지사항은 다음과 같다.

서명	妙法蓮華經三昧懺法
저자	釋迦(天竺) 造; 山亘(高麗) 集.
판종	木板本
발행	한국: 月山社, 泰定3(1326)年.
형태	上中下 3帖(完帙); 1折 30.7 × 12.2cm, 折帖裝.
판식	上下單邊, 板高 25.5cm, 無界, 6行19字, 無魚尾.
간기	泰定三(1326)年丙寅五月日 奉教 月山社開板
특기	卷下の 前表紙 脫落

위 서지사항에서 볼 수 있듯이, 이 책은 상중하 3첩이 모두 완전한 상태로 발견되었으나, 권하의 앞표지만 탈락된 상태이다. 표지는 장지에 쪽물을 드린 감지(紺紙)를 사용하여 만들었으며, 바탕에는 특별한 장식 없이 단순하다. 표지의 중앙에는 은니로 정방형의 선을 긋고 그 안에 '法華經三昧懺'이란 서명을 쓰고 서명 아래로 권차를 적어 놓았다.

상권의 표지를 넘기면, 제1행에 서명인 '妙法蓮華經三昧懺法'이 보이고, 다음 행에는 찬자표시 없이 계송이 수록되어 있다. 이어 '分經

科目'이란 제목 아래에 12과목이 차례로 기재되어 있으며, 그 밑으로 각 과목에 해당되는 법화경의 품제(品題)가 기입되어 있어 이 책의 전체적인 구성을 살펴 볼 수 있다. 각 책은 4과씩으로 구분되어 전체 12과로 편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책의 전체적인 편성은 <표 4>와 같다.

전체적인 구성을 보이는 <分經科目>에 이어 별도의 단락 구분 없이 바로 제1분과인 <六瑞問答>이 시작되고 있다. 다만 '如是我聞'으로 시작되는 본문에 앞서 '禮佛要抄'와 '同聲

<표 4> 妙法蓮華經三昧懺法の 分經科目

卷次	科目	品題
上卷	六瑞問答	序品
	法說周	方便品
	譬喻周	譬喻品/信解品/藥草喻品/授記品
	因緣周	化城喻品
中卷	聞三周說法受記作佛	五百弟子授記品/授學無學人記品
	凡聖弘贊廣大	法師品/見寶塔品/提婆達多品/持品
	淺行菩薩惡世說經	安樂行品
	開迹顯本授成佛記	從地涌出品/如來壽量品/分別功德品
下卷	古今弘通并佛付屬	隨喜功德品/法師功德品/常不輕菩薩品/如來神力品/囑累品
	化他之師爲法忘身	藥王菩薩本事品
	他方大士奉命弘經	妙音菩薩品/觀世音菩薩品
	惡世擁護流通	陀羅尼品/妙莊嚴王本事品/普賢菩薩勸發品

誦經'이란 지시어가 표시되어 있다. 그리고 권말의 권말제 다음에 '傳天台教觀天幕沙門釋山亘集'이란 기록이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표식은 대체로 권두서명 다음 행에 있어야 할 것이다. 비록 관례에 벗어나 있기는 하나, 산공을 찬집자로 보아도 좋을 듯하다. 각 책의 말미에는 '施主 自明'이란 묵서 기록이 보이고 있는데, 대체로 두 가지로 해석해 볼 수 있겠다. 첫째는 이 책을 후대에 인출(印出)할 때 시주한 경우, 둘째는 이 책을 소지하고 있다가 후대에 불상에 시납했던 인물로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대체로 전자의 경우로 판단된다.

이 책의 전체 크기는 상권을 기준으로 30.7 × 12.2cm에 해당된다. 판식의 특징을 살펴보면, 변란은 상하단변으로 본래 권자나 접장의 형태로 제책할 의도로 만들어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판면에는 계선(界線)이 없으며, 광곽의 높이는 25.5cm이다. 전엽을 기준으로 30행으로 1절은 6행씩으로 되어 있으며, 매 행은 19자씩 배자되어 있으며, 협주(夾註)는 소자쌍행이다. 본문 사이에 '懺上 二卜'으로 표시되어 약서명, 권수 및 장차를 밝히고 있다. 본문에는 교정한 흔적이나, 구결 또는 주석 등이 묵서되어 있지 않다.

하권의 말미에는 권말제 아래에 '玄解'라는 이름이 보이고 있으며, 다음 행에 상중하 3권의 편성 사실을 밝히고 있다. 이어 각 권의 말미에

기재되어 있는 찬집자 산공(山亘)이 동일하게 나타나 있다.⁹⁾ 그리고 하권에만 권집자(勸集者) 지서(止西)와 교감자(校勘者) 지사(之山), 진안(眞安), 지안(智安), 굉지(宏之), 일미(一眉) 등의 이름이 차례로 기재되어 있다. 교감 표시에 이어서 '泰定三年丙寅五月 奉教月山社開板'이라는 간기가 기록되어 있어, 이 책이 1326(충숙왕13)년에 월산사(月山社)에서 판각되었던 사실을 알 수 있다.¹⁰⁾ 간기 다음에는 권발(勸發)인 원오(元昨), 연화(緣化)에 중덕(中德), 신행(信行), 입선(入選), 홍일(弘一), 서사(書寫)에 현해(玄解), 타철(打鐵), 임세(林世), 덕인(德仁), 연판(鍊版)에 지식(知識), 중오(中悟), 법전(法全), 그리고 조각(雕刻)에 입선(入選), 신연(信淵), 경련(敬蓮), 현해(玄解) 등의 이름이 차례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들은 이 책의 간행에 참여한 사람으로 직책(職責)과 함께 열거되어 있다. 그 다음에는 수희(隨喜)에 정홍현(鄭仁鉉), 동원(同願)에 송규(宋珪)와 백씨(白氏), 그리고 시주자인 중덕(中德)과 법주(法住), 거사인 박춘(朴椿), 노파(老婆), 중태(中台)가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시주 다음 행에 끝부분에 '[各]納白金壹斤'이란 기록이 보이고 있어 앞의 시주자들이 각각 백금 1근씩을 기부한 것으로 보인다. 왕룡사원본 각 책의 말미에 '施主 自明'이란 묵서가 보이고 있다.

9) 보물 제1162호 구인사본(김민영 구장)의 지정보고서에는 찬자를 정공(正亘)으로 밝히고 있으나, 이 보다 앞서 지정된 보물 제 959호 기림사본에는 산공으로 되어 있으며, 또한 새로 발견된 왕룡사본에도 산공으로 표기되어 있어 '山亘'으로 수정해야 한다.

10) 월산사(月山寺)는 충청남도 청양군 남양면 백금리 백월산(白月山)에 있었던 사찰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 절이 어느 때 창건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유물로 보아 고려시대 이전에 창건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리고 1481(성종12)년에 편찬된 《東國輿地勝覽》에 사명이 보이고 있으나, 영조 때(1724-1776) 편찬된 《輿地圖書》에는 이름이 보이지 않은 것으로 보아 대체로 임진왜란 때 폐사(廢寺)된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국내에는 동일본 3점이 현전하고 있는데, 상권은 김민영과 기림사에 소장되어 있고, 하권은 구인사에 소장되어 있으며, 이들은 모두 보물로 지정되어 있다. 상권의 권말에 김민영본에는 '化主 信海'라는 묵서(墨書)가 보이고 있으며, 기림사본에는 '施主 自明'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처럼 동일한 묵서 기록이 있는 기림사본은 왕룡사원본과 동일한 시기에 인출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¹¹⁾

그리고 하권인 구인사본(보물제1162호)은 의경왕(懿敬王: 德宗으로 추존)의 비이며 성종의 어머니인 인수대비(仁粹大妃)가 성종3년(1472)에 돌아간 세조·예종·의경왕·인성대군(仁城大君)의 명복과, 생존한 정희대왕대비와 주상 및 왕비의 만수무강을 기원하여 시주를 내어 많은 불경을 간행한 사실이 있다. 이때 간행된 많은 불경들은 대부분 이전시기에 판각하여 보존한 경판에서 인출하였고, 그 사실은 김수온(金守溫)으로 하여금 발문(跋文)을 짓게 하여 이를 갑인소자(甲寅小字)로 찍어 각 불경의 권말에 부쳐서 간행한 불경 중 하나에 해당한다. 이때 법화경삼매참법은 겨우 20부 밖에 찍어내지 않아 전해지는 것이 별로 없으며, 현재까지 보물로 지정된 판본 3점이 유일한 전본(傳本)으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왕룡사원본은 성종초기에 인수대비 등의 발원으로 후인(後印)한 구인사본과는 여러 측면에서 다르게 보인다.

이처럼 이 책은 역대의 주요 정장(正藏) 및 교장(敎藏) 목록(目錄)에 실려 있지 않고 있으며, 또한 그 현전본이 매우 희귀하며, 특히 상

중하 3책의 완질본이라는 점에서 그 자료적 가치가 매우 크다.

4.3 高麗本 佛說長壽滅罪護諸童子陀羅尼經

4.3.1 長壽經의 概要

이 책은 현세의 죄업(罪業)을 모두 소멸(消滅)하고 장수(長壽)의 법을 설(說)한 내용으로 계빈국(鬪賓國) 사문 불타바리(佛陀波利)가 한역(漢譯)한 경전을 저본으로 우리나라에서 고려 말 1378년에 목판으로 간행한 불경이다. 이처럼 이 불경은 어린 동자를 보호하여 죄를 멸하게 하고 오래 장수하는 법을 설해 주는 밀교 계통의 경전으로, 흔히 줄여서 장수경(長壽經)으로 약칭하기도 한다. 한역자는 계빈국 스님 불타바리(佛陀波利)라고 밝혀져 있는데, 불타바리의 중국명은 각호(覺護)라고 부른다. 그는 당나라 의봉(儀鳳) 1(676)년에 중국 청량산에 문수보살을 참배하려고 찾아 왔다가, 어떤 노인이 《불정존승다라니경(佛頂尊勝陀羅尼經)》을 구하자 바로 본국에 돌아가서 경전을 가지고 중국으로 돌아와 번역하였던 인물로 알려져 있다.

장수경의 구성은 문수사리(文殊師利)의 질문에 대해 석가모니 부처가 대답을 해주는 형식으로 되어 있다. 첫머리에 문수사리가 모든 중생이 죄를 없애고 오래 사는 방법에 관하여 질문을 하였다. 그러자 석가모니는 과거 세상에 보광정견여래(普光正見如來)와 전도비구니(顛倒比丘尼)가 하였던 대화의 형식으로 설법을 한다. 따라서 전체의 설법은 보광여래가 전도비

11) 이처럼 동일한 시주자에 의해 인출되어 여러 사찰의 불상에 납입된 사례는 처음으로 소개되고 있다. 이러한 사실로 보아 기림사 비로자나불과 왕룡사원의 삼존불상의 복장품과는 특이한 관련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구니에게 말하는 것처럼 전개되는데, 내용으로 보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먼저 앞부분에서는 이 세상에서 참회해도 멸하기 어려운 다섯 가지 악업인 살부(殺父)와 살모(殺母), 살태(殺胎), 출불신혈(出佛身血), 파화합승(破和合僧)을 절대 범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설한다. 다음에는 십이인연(十二因緣)을 설명하면서, 이것을 보는 자는 법(法)을 보고, 법을 보는 자는 불(佛)을 보게 되니, 이렇게 불을 보는 것이 바로 불성(佛性)이라고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육바라밀(六波羅密)과 성불(成佛)의 계(偈)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경(經)의 하반부에는 바사너왕(波斯匿王)의 궁에서 생긴 일을 기록하고 있다. 어떤 여인이 밤 새 소리 높이 통곡을 하였기에 왕 앞에 불려갔다. 그는 왕에게 자신이 살아온 반생 동안의 고통을 모두 털어놓는다. 그 내용은 “14세에 시집와서 30년 동안 아들을 서른이나 낳았지만, 모두 1년을 채 넘기지 못하고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남은 아이 하나마저도 죽을 지경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울고 있는 것입니다”하니, 대왕은 여인을 석가모니 앞으로 데리고 가서 이러한 사연을 아뢰고, 이 여인을 위해 설법을 해 달라고 요청

한다. 그때에 석가모니가 설법한 내용을 기록한 것이 바로 이 장수경인 것이다. 본문 끝에서 석가모니는 이 경을 《장수멸죄십이인연불성경(長壽滅罪十二因緣佛性經)》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 경전에서 말하고자 하는 장수와 멸죄, 그리고 십이인연, 불성의 문제를 축약하고 있는 표현이라고 하겠다.

현재 우리나라 고려시대에 간행된 장수경은 1342년에 간행된 판본 등 3종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중 왕룡사원본과 동일한 판본은 보물 701호로 지정되어 있다.

4.3.2 板本의 特徵

왕룡사원 소장의 장수경은 고려 말 1378년에 간행된 불경으로 절첩장(折摺裝) 형태로 장정되어 있다. 표지는 간행 당시의 것으로 보이며, 오랜 동안 불복(佛腹)에 봉안되어 있다 발견되었기 때문에 상단의 일부 훼손을 제외하면 비교적 보존 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생각된다. 표지는 갈색으로 염색한 종이로 만들어 졌으며, 특별한 장식은 없이 중앙의 제첩에 ‘佛說長壽滅罪護諸童子經’이란 경명이 보이고 있는데, 이 또한 초간 당시에 만든 것으로 원형이 잘 남아 있다. 이 책의 상세한 서지사항은 아래와 같다.

서명	佛說長壽滅罪護諸童子陀羅尼經
저자	釋迦(天竺) 造; 佛陀波利(闍賓) 譯.
판종	木板本
발행	한국: [미상], 戊午[1378].
형태	1帖, 變相圖: 1折 41.0 × 11.0cm, 折帖裝.
판식	上下單邊, 板高 19.7cm, 無界, 6行15字, 無魚尾.
표제	佛說長壽滅罪護諸童子經
간기	戊午(1378)五月日重刻
특기	施主 法弘 / 金臣桂(보물 701호와 동일본)

서지사항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이 책의 권수에 있는 변상도는 완전한 상태로 남아있다. 현재 보물로 지정되어 있는 호암본과 왕릉사원본을 비교해 보면, 호암본에는 권수의 변상도를 포함하여 본문 장1과 장2의 일부가 결락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호암본에서 알 수 없었던 권두의 서명사항 또한 권두서명과 역자표시가 2행에 걸쳐 기재되었음이 확인된다. 그리고 제1장의 길이는 변상도 3절을 포함하여 모두 5절로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이하의 장차도 모두 5절씩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권수의 변상도를 제외하고 경문 중에 그림이 들어 있는 곳이 두 곳에서 발견된다.

판식의 특징을 살펴보면, 변란은 상하단변으로 접장이나 권자의 형태에 흔히 나타나는 형식이다. 변란의 상하간의 높이는 19.7cm이며, 한 장의 길이는 55cm이다. 한 장은 모두 30행으로 한 행은 15자씩으로 배자되어 있으며, 1절은 6행으로 5절로 접혀있다. 그리고 각 장의 중앙에는 '長'이란 약서명과 그 아래로 장수가 표시되어 있으며, 전체는 22장으로 되어 있다.

권말제 다음 행에는

主上殿下壽萬歲

諸官宗室各保千秋國泰民安雨

順風調未稼登稔天下太平法界有

情俱登覺岸者

戊午五月日重刻

勸善比丘自延

同願比丘覺寬

同願比丘解禪

施主 比丘 法弘

金 臣桂

라는 발원문 및 간행기록이 보이고 있다.

이 발원문에 의하면, 이 책은 주상전하의 수명 장수와 국태민안을 기원할 목적으로 법홍(法弘)과 김신계(金臣桂)의 시주로 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간행연대를 단지 '戊午'라는 간지로 표시하고 있어 정확한 연대를 알 수 없다. 그런데 현존하는 고려본 은중경 가운데 역시 '戊午'로 표기된 판본이 현재 보물로 지정되어 기림사에 보존되어 있는데, 이들 상호간에 간행에 관련이 있을 듯하다. 이 기림사본 은중경의 권말에 보이는 화주(化主)에 '自延'와 시주명에도 '法弘'과 '金臣桂'란 이름이 나란히 보이고 있어, 이들이 동시에 같은 장소에서 간행되었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 이러한 점으로 보아, 이 책은 무오년인 1378(우왕4)년에 판각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뒤표지의 안쪽으로 여러 명의 시주자와 함께 화주에 '信禪, 信忍, 義珣' 등의 이름이 묵서로 기록되어 있다. 이 기록으로 보아 이 책은 1378년에 판각된 목판에서 조선 초기에 후인(後印)하여 불복에 복장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경문은 전체적으로 묵서구결 등의 흔적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으며, 접은 상태의 중앙부분에 누습의 흔적만 보이고 있다. 자체는 복각이 이루어진 까닭에 전체적으로 치졸한 느낌을 주고 있으나, 예리한 필체가 구양순체를 바탕으로 필사된 원간본을 저본으로 복각된 것으로 보인다. 지질은 조금 두텁고 세로의 발문이 굵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이는 것으로 보아 대체로 고려 후기에서 조선 초기에 사용된 인경지로 판단된다.

이 책은 주로 국가의 안녕과 주상전하의 수

명장수, 그리고 가정의 화복을 기원하는 공덕의 목적으로 간행되고 있는 대표적 불경이다. 경우에 따라 은중경과 짝을 이루어 간행되는 현상도 보이고 있으며, 본문에 불경의 내용을 요약하여 묘사한 변상도(變相圖)가 정교하게 새겨져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고려시대 변상도는 판화의 연구에 중요한 자료로 평가되어 주목되는 판본이다.

5. 結 言

이상에서 지난 2006년 10월에 경주 왕룡사원의 삼존불상에서 수습한 복장유물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그 결과 이 삼존불상에서 수습된 복장유물에는 보물급에 해당되는 전적류 4종 6점이 포함되어 있음을 중심으로 밝혔으며, 그 밖의 복장유물 현황은 아래와 같다.

1. 삼존불상에서 수습된 복장유물을 특성에 따라 분류 정리해 본 결과, 전적류가 8종 16점, 문건류는 10종, 납입류는 16점이 포함되어 있음이 조사되었다.

2. 복장유물에는 불상의 조성 및 중수시기를 밝혀주는 조성기와 중수기 5점이 발견되었다. 이에 의하면 삼존불상 중 아미타불상은 1467년, 석가불상과 약사불상은 1579년에 각각 조성되었고, 그 후 이 삼존불상은 1716년에 동시에 중수되었던 사실이 확인되었다.

3. 전적류에는 원나라에서 1338년에 간행된 《圖解金剛經》이 발굴되었는데, 이 책은 우리나라에 처음 소개되며 현재 중국에도 현전하지 않는 판본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 책과 흡사

한 불경이 고려 1363년에 전라도 남원부에서 개판된 판본이 현전하고 있으나, 고려본은 원간본을 그대로 복각한 것이 아니라 고려에서 이를 저본으로 신지가 새로 글씨를 쓰고 법계가 그림을 그려 간행한 불경으로 밝혔다.

4. 또한 전적류에는 《妙法蓮華經三昧懺法》 3권 3책의 완질본이 발굴되었는데, 종래 국내에는 권상 2책과 권하 1책만이 알려져 있었다. 따라서 이 책의 발굴로 그 동안 미궁으로 남아있었던 권중의 본문내용과 간행사실을 밝힐 수 있는 결정인 자료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이 책은 권하의 말미에 간행기록이 완전하게 남아있어 1326년에 충청도 청양의 월산사(月山社)에서 개판되었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5. 그리고 현재 보물로 지정되어 있는 판본과 동일한 《長壽經》 1책이 발굴되었는데, 이미 보물로 지정된 호암본에는 권수의 변상도와 권수제의 일부가 결실되어 있는데 비해 완전한 상태로 발견되어 권수제 및 변상도의 특징을 살펴는데 중요한 자료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상에서 밝혀진 《도해금강경》에서 알 수 있듯이, 근래 불복에서 발견된 전적류 중에 우리나라에서 간행된 불경외에 중국의 송대 또는 원대에 간행된 판본이 간혹 포함되어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까지 중국의 송원대에 간행된 판본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그다지 중시하지 않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비단 중국본 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동아시아 전역에서 간행된 서적의 전래 및 유통 측면에서 새롭게 자리매김할 시점인 것으로 생각된다.

參 考 文 獻

宋元板刻圖釋. 2000. 北京: 學苑出版社.

문명대. 2007. 『왕릉사원의 조선전반기 불상조각』. 서울: 한국미술사연구소

南權熙. 2002. 『高麗時代 記錄文化 研究』. 청주: 고인쇄박물관

宋日基. 2004. 光州 紫雲寺 木造阿彌陀佛坐

像의 腹藏典籍考. 『書誌學報』, 28: 79-114.

宋日基. 2004. 益山 王宮塔 出土《百濟金紙角筆金剛寫經》의 研究 『馬韓·百濟文化』, 16: 147-183.

〈寫眞資料〉

1. 元刊本 圖解金剛經

2. 高麗本 妙法蓮華經三昧懺法, 卷中, 下

妙法蓮華經三昧懺法卷中
 五者聞三周說法受記作佛 五百弟子受記品
 禮佛要妙 誦經
 余時佛告諸比丘汝等見是富樓那多羅尼乎
 不我常稱其於說法人中最高第一亦常歎其種
 種功德過無量阿僧祇劫當於此土得阿耨多羅
 三藐三菩提號曰法明如來應供正徧知明行足
 善逝世間解無上士調御丈夫天人師佛世尊劫
 名寶明國名善淨其佛壽命無量阿僧祇劫法住
 其父佛滅度後起七寶塔徧滿其國
 我大弟子憍陳如比丘當供養六万二千億佛然
 後得成爲佛號曰普明如來應供正徧知明行足
 善逝世間解無上士調御丈夫天人師佛世尊
 其五百阿羅漢等皆當得阿耨多羅三藐三菩提
 盡同一號名曰普明
 爾時佛告阿難汝於來世當得作佛號山海慧
 在通王如來應供正徧知明行足善逝世間解
 上士調御丈夫天人師佛世尊國名常立勝勝劫
 名妙音徧滿其佛壽命無量千万億阿僧祇劫正
 法住世倍於壽命像法住世復倍正法阿難是山
 海慧自在通王佛爲十方無量千万億恒河沙等
 諸佛如來所共讚歎稱其功德
 余時佛告羅睺羅汝於來世當得作佛號蹈七寶
 華如來應供正徧知明行足善逝世間解無上士

皈依三寶竟 所作諸功德 施一切有情
 皆共成佛道
 妙法蓮華經三昧懺法卷中
 傳天台教觀天華沙門釋 山宣 集
 施主 白明

隨喜 宣軍十戶中宣軍十戶中宣軍十戶中宣軍十戶中
 同願 肩左右衛兵將尉朱 珪
 同願 雲梯都夫人白 氏
 施主 中德法住屋 朴橋 孝安 十白
 各明白金壹斤
 施主 同明
 三十三下

2. 高麗本 妙法蓮華經三昧懺法, 卷下

3. 高麗本 佛說長壽滅罪護諸童子陀羅尼經

〈附 錄〉 왕룡사원 복장유물 목록

□ 아미타불좌상(1474년 조성) 복장물

표목 금강반야바라밀경
 서명 金剛般若波羅密經
 저자 釋迦(天竺) 造: 鳩摩羅什(姚秦) 譯.
 판종 筆寫本(寫經)
 발행 한국: 미상, 조선전기.
 형태 折帖裝; 1折 25.5 × 11.0cm.
 판식 上下單變, 板高 20.5cm, 紅絲欄, 6行17字, 無魚尾.
 특기 白紙墨書寫經, 表紙脫落, 뒷면은 蒙山施食儀文이 筆寫.

표목 묘법연화경
 서명 妙法蓮華經, 卷2
 저자 釋迦(天竺) 造: 鳩摩羅什(姚秦) 譯; 戒環(宋) 解
 판종 木板本(乙亥字本覆刻)
 발행 [大邱(慶尙)]: 미상, 조선후기.
 형태 1卷1冊: 31.0 × 24.3cm.
 판식 四周單邊, 半郭 25.8 × 31.0cm, 有界, 半葉 9行16字, 內向黑魚尾.
 묵서 大丘東門外居腹藏大施主 趙氏彦礼單身保体

표목 묘법연화경
 서명 妙法蓮華經, 卷3
 저자 釋迦(天竺) 造: 鳩摩羅什(姚秦) 譯; 戒環(宋) 解
 판종 木板本(乙亥字本覆刻)
 발행 [大邱(慶尙)]: 미상, 조선후기.
 형태 1卷1冊: 31.0 × 24.3cm.
 판식 四周單邊, 半郭 25.8 × 31.0cm, 有界, 半葉 9行16字, 內向黑魚尾.
 묵서 腹藏大施主 趙氏彦礼單身保体 能脫女身爲男子之願 化主妙岑保体

표목 묘법연화경
 서명 妙法蓮華經, 卷4
 저자 釋迦(天竺) 造: 鳩摩羅什(姚秦) 譯; 戒環(宋) 解
 판종 木板本(乙亥字本覆刻)
 발행 [大邱(慶尙)]: 미상, 조선후기.
 형태 1卷1冊: 31.0 × 24.3cm.
 판식 四周單邊, 半郭 25.8 × 31.0cm, 有界, 半葉 9行16字, 黑口, 內向黑魚尾.
 묵서 大丘東門外居腹藏大施主 趙氏彦礼單身保体 能脫女身爲男子之願/印主施主惠玉保体

표목 묘법연화경
 서명 妙法蓮華經, 卷5

저자 釋迦(天竺) 造; 鳩摩羅什(姚秦) 譯; 戒環(宋) 解
 판종 木板本(乙亥字本覆刻)
 발행 [大邱(慶尙)]: 미상, 조선후기.
 형태 1卷1冊: 31.0 × 24.3cm.
 판식 四周單邊, 半郭 25.8 × 31.0cm, 有界, 半葉 9行16字, 大黑口, 內向黑魚尾.
 묵서 大丘南門外趙氏彥禮單身保体 腹藏大施主 / 印經大施主比丘惠玉保体

표목 묘법연화경삼매참법
 서명 妙法蓮華經三昧懺法, 卷下
 저자 釋迦(天竺) 造; 山巨(高麗) 集.
 판종 木板本
 발행 한국: 月山社, 泰定3(1326)年.
 형태 折帖裝: 1折 31.0 × 13.2cm.
 판식 上下單邊, 板高 25.0cm, 無界, 6行19字, 無魚尾.
 간기 泰定三(1326)年丙寅五月日 奉敎 月山社開板
 특기 前表紙 脫落

표목 불설장수멸죄호제동자다라니경
 서명 佛說長壽滅罪護諸童子陀羅尼經
 저자 釋迦(天竺) 造; 佛陀波利(闍賓) 譯.
 판종 木板本
 발행 한국: [미상], 戊午[1378].
 형태 折帖裝, 變相: 1折 41.0 × 11.0cm.
 판식 上下單邊, 板高 19.7cm, 無界, 6行15字, 無魚尾.
 표제 佛說長壽滅罪護諸童子經
 간기 戊午(1378)五月日重刻
 특기 施主 法弘 / 金臣桂(보물 701호와 동일본)

표목 선종영가집
 서명 禪宗永嘉集, 卷上
 저자 玄覺(唐) 撰; 行靖(宋) 註; 信眉(朝鮮) 等譯.
 판종 木板本(刊經都監本)
 발행 漢城: 刊經都監, [天順8(1464)年].
 형태 1卷1冊: 31.3 × 21.0cm.
 판식 四周雙邊, 半郭 21.8 × 15.5cm, 有界, 半葉 8行19字, 注雙行, 大黑口, 內向黑魚尾.
 표제 禪宗永嘉集
 특기 권상 1책이 2책으로 분리되어 있음. 표지 탈거되고 표제면 묵서되어 있음.

표목 다라니
 건명 다라니 01
 판종 木板本
 형태 1張, 符籙圖: 38.5 × 63.7cm.
 판식 四周單邊, 全郭 27.5 × 59.8cm.

표목 다라니
건명 다라니 02
판종 木板本
형태 1張: 37.5 × 64.1cm.
판식 四周單邊, 全郭 28.8 × 62.2cm.

표목 다라니
건명 다라니 03
판종 木板本
형태 1張: 24.6 × 48.3cm.
판식 四周單邊, 全郭 22.4 × 48.0cm.

표목 다라니
건명 다라니 04
판종 木板本
형태 1張: 24.6 × 47.2cm.
판식 上下單邊, 全郭 22.8 × 47.0cm.

표목 목사리호와 사리
건명 목사리호와 사리

표목 미타삼존조성기
건명 彌陀三尊造成記
연대 成化3(1467)年甲午12月誌 太后
형태 1張: 46.0 × 114.3cm.

표목 미타삼존중수기
건명 彌陀三尊重修記
연대 康熙55(1716)年丙申午月日
형태 1張: 46.0 × 114.3cm.

표목 복광, 5색실, 5약 등 일괄
건명 복광, 5색실, 5약 등 일괄

표목 오륜진언
건명 五輪眞言
형태 1張: 48.0 × 14.0cm.

표목 응덕
건명 應德
형태 1張: 40.2 × 63.0cm.

표목 기타

건명 기타
형태 1張: 45.7 × 31.8cm.

□ 석가모니불좌상(1579년 조성) 복장물

표목 금강반야바라밀경
서명 金剛般若波羅密經
저자 釋迦(天竺) 造; 鳩摩羅什(姚秦) 譯.
판종 木板本(中國)
발행 中國(元): [大元國大都 在城蓬萊坊], 至元4(1338)年.
형태 折帖裝, 上有變相: 1折 28.5 × 11.0cm.
판식 上下單邊, 板高 20.8cm, 無界, 1折 7行12字.
표제 金剛般若波羅密經(金泥寫)
간기 至元四(1338)年戊寅五月日
특기 卷首變相: 20.8 × 42.8cm, 본문에 삽화와 題가 있고 卷末에 神將圖 있음.
표지는 고려사경 표지와 동일하게 장식되어 있으며, 전체 襟接 수리하였음.

표목 선종영가집
서명 禪宗永嘉集, 卷上
저자 玄覺(唐) 撰; 行靖(宋) 註; 信眉(朝鮮) 等譯.
판종 木板本(刊經都監本)
발행 漢城: 刊經都監, [天順8(1464)年].
형태 1卷1冊: 31.3 × 21.0cm.
판식 四周雙邊, 半郭 21.8 × 15.5cm, 有界, 半葉 8行19字, 注雙行, 大黑口, 內向黑魚尾.
표제 禪宗永嘉集
특기 권상 1책이 2책으로 분리되어 있음. 표지에 충식이 심함.

표목 묘법연화경
서명 妙法蓮華經, 卷4-7
저자 釋迦(天竺) 造; 鳩摩羅什(姚秦) 譯.
판종 木板本(花岩寺板覆刻)
발행 兎山(黃海): 石頭寺, 嘉靖22(1543)年刻 嘉靖30(1551)年後刷.
형태 4卷1冊: 29.1 × 17.8cm.
판식 四周單邊, 半郭 19.5 × 13.9cm, 無界, 半葉 10行20字, 無魚尾.
간기 嘉靖二十二(1543)年癸卯六月日黃海道兎山地鶴鳳山石頭寺留板
묵서 嘉靖三十(1551)年三月日造 比丘熙清
특기 表紙脫落

표목 묘법연화경
서명 妙法蓮華經, 卷1
저자 釋迦(天竺) 造; 鳩摩羅什(姚秦) 譯; 戒環(宋) 解
판종 木板本(乙亥字本覆刻)
발행 [大邱(慶尙)]: 미상, 조선후기.

- 형태 1卷1冊; 31.8 × 24.0cm.
 판식 四周單邊, 半郭 25.7 × 21.0cm, 有界, 半葉 9行16字, 內向黑魚尾.
 묵서 大丘南門外居腹藏大施主 趙彥禮單身保体 能脫女身爲男子之願/大化主處源保体
 표지 없이 가철된 상태로 여러 불상에 분산 복장.
- 표목 묘법연화경
 서명 妙法蓮華經, 卷6
 저자 釋迦(天竺) 造; 鳩摩羅什(姚秦) 譯; 戒環(宋) 解
 판종 木板本(乙亥字本覆刻)
 발행 [大邱(慶尙)]: 미상, 조선후기.
 형태 1卷1冊; 31.8 × 24.0cm.
 판식 四周單邊, 半郭 25.7 × 21.0cm, 有界, 半葉 9行16字, 大黑口, 內向黑魚尾.
 묵서 大丘南門外居腹藏大施主 趙彥禮單身保体 脫女身爲男子之願 / 印經大施主比丘惠玉保体
 특기 표지 없이 가철된 상태로 여러 불상에 분산 복장.
- 표목 석가불상조성기
 건명 釋迦佛像造成記
 연대 [成化3(1467)年]
 형태 1張: 35.7 × 18.0cm.
 특기 상태불량, 紫色비단에 朱書되어 있음.
- 표목 석가불상중수기
 건명 釋迦佛像重修記
 연대 康熙55(1716)年.
 형태 1張: 45.7 × 130.0cm.
- 표목 후령통 및 부속자료 일괄
 건명 후령통 및 부속자료 일괄

□ 약사불좌상(1579년 조성) 복장물

- 표목 금강반야바라밀경
 서명 金剛般若波羅密經
 저자 釋迦(天竺) 造; 鳩摩羅什(姚秦) 譯.
 판종 木板本
 발행 한국: 미상, 고려후기.
 형태 折帖裝; 1折 26.6 × 11.2cm.
 판식 上下單邊, 板高 24.2cm, 無界, 5行17字, 無魚尾.
- 표목 금강반야바라밀경
 서명 金剛般若波羅密經
 저자 釋迦(天竺) 造; 鳩摩羅什(姚秦) 譯.
 판종 筆寫本(寫經)

발행 한국: 미상, 조선전기.
 형태 折帖裝: 1折 25.5 × 11.0cm.
 판식 上下單變, 板高 20.5cm, 金絲欄, 6行17字, 無魚尾.
 특기 白紙墨書寫經, 表紙脫落, 아미타불좌상 금강사경(01)의 권수부분.

표목 묘법연화경삼매참법
 서명 妙法蓮華經三昧懺法, 卷上
 저자 山亘(高麗) 集.
 판종 木板本
 발행 한국: 月山社, 泰定3(1326)年.
 형태 折帖裝: 1折 30.8 × 12.2cm.
 판식 上下單邊, 板高 25.8cm, 無界, 6行大19字 小25字, 無魚尾.
 표제 法華經三昧懺

표목 묘법연화경삼매참법
 서명 妙法蓮華經三昧懺法, 卷中
 저자 山亘(高麗) 集.
 판종 木板本
 발행 한국: 月山社, 泰定3(1326)年.
 형태 折帖裝: 1折 30.8 × 12.2cm.
 판식 上下單邊, 板高 25.8cm, 無界, 6行大19字 小25字, 無魚尾.
 표제 法華經三昧懺

표목 수장식과 후령통외 일괄
 건명 수장식과 후령통외 일괄

표목 약사불좌상조성기
 건명 藥師佛坐像造成記
 연대 萬曆7(1579)年己卯五月
 판식 1張 13.0cm × 129cm.
 특기 朱墨 筆寫

표목 종두패
 건명 鐘頭牌
 판식 1張 23.5cm × 35.3cm.
 특기 筆寫